

# ‘여름 장마철 성큼’ 우리집 보일러 관리 요령은 “1~2주에 1시간 가동시켜 습기 제거하세요”

**경동나비엔·귀뚜라미**  
습기·누수·곰팡이에 취약  
고장유무 사전에 판단해야  
연통 연결부위 수시로 확인



경동나비엔 실시간 채팅상담 이미지.

여름철과 장마가 성큼 다가오면서 자칫 방치하기 쉬운 보일러 관리 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처럼 50일 넘게 여름 장마가 올해에도 이어진다면 습기, 누수, 곰팡이 등으로 인해 보일러가 손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정기적으로 작동시켜 습기가 차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고장 유무를 사전에 판단해야하고, 외부에 노출된 연통을 통해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6일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도움을 받아 여름 장마철 보일러 관리 요령을 정리해봤다.

우선 여름에도 1~2주에 한 차례씩 보일러를 작동시켜야한다.

대부분이 전기·전자장치로 이뤄진 보일러의 최대 적은 습기다.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인 가동은 필수다. 작동시간은 1회에 1~2시간이면

충분하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보일러를 켜면 높아진 실내 온도 탓에 오히려 곰팡이가 더 생길 수 있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며 보일러를 작동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보일러 작동은 실내 습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전동이나 번개가 치는 날엔 낙뢰로 인해 보일러 회로판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 보일러 정기점검은 위험하다”면서 “번개가 치는 날엔 전원 플러그를 빼야한다”고 조언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날도 보일러를 가동해선 안된다. 연통에 충격이 가해져 보일러와 연통 연결 부위에 틈새가 생겨 비가 보일러 기계 장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통의 연결 상태도 자주 눈으로 확인해야한다. 연통이 손상되면 연소 폐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보일러 연통 점검은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고, 전원선을 빼놓은 상태에서 보일러의 열이 충분히 식었는지 확인한 다음 실시해야한다.

연통 외관을 눈으로 살피며 이탈 또는 찌그러지거나 구멍 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연통 체결 부위를 살살 흔들어보면서 연통이 쉽게 빠지거나 연결이 헐겁지 않은지 살피면 된다.

낙뢰가 심한 날을 제외하고는 보일러 전원 플러그를 꽂아둬야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보일러에는 순환 펌프와 송풍기 등 내부 회전 부품이 24시간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굳는 현상을 막기 위해 30초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착 방지 기능’이 있다”면서 “플러그를 뽑으면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보일러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어 난방 사용이 없는 여름철에도 보일러 전원 플러그는 연결해둬야한다”고 설명했다.

보일러 회사들마다 고장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업계 최초로 전화, 모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상담사로부터 비대면 상담 및 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상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귀뚜라미도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후서비스(A/S)를 접수하고 제공하고 있다.

귀뚜라미의 카카오톡 A/S 접수 내용은 본사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담당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되며, 동시에 소비자에게 접수내용 확인 안내문과 배정된 A/S 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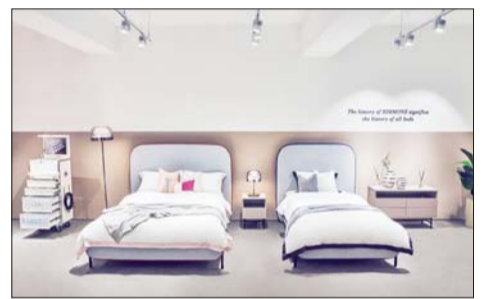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한진-테라사이클 친환경 자원순환 플랫폼 론칭

한진이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플랫폼을 새로 선보였다.

한진은 공유가치창출(CSV) 활동 일환으로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 테라사이클과 친환경 업사이클링(Upcycling) 플랫폼 ‘PLANET’을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PLANET’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Planet)’의 업사이클링을 위한 ‘계획(Plan-it)’이라는 의미로,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일회용품 수거를 신청하고 이를 지원으로 다시 순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간 동안 한진은 일회용품을 수거하고 배송하는 업무와 더불어 친환경 택배박스 ‘날개박스’ 제작업체 에코라이프패키징과 협업해 일회용품의 보관 및 수거가 가능한 제로-웨이스트 박스(Zero Waste Box)를 제작했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김포 풍무동에 ‘시몬스 맨션’

시몬스가 경기 김포 풍무동에 ‘시몬스 맨션 김포풍무점’ (사진)을 열었다. 이는 김포 지역 첫 시몬스 맨션이다.

6일 시몬스에 따르면 새로 문을 연 시몬스 맨션 김포풍무점은 경기 서북부권 교통의 중심인 김포 풍무지구에 자리했다. 대형 주거 단지가 몰려 있는 풍무동과 사우동, 장가동이 인접해 배후수요가 풍부하며, 검단신도시와 서울 강서 지역 주민까지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췄다.

시몬스 맨션 김포풍무점은 약 100평 규모의 넓은 매장으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선사한다. 단층으로 구성된 매장은 총 16조에 달하는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비치해 최상의 브랜드 경험을 맞출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청호나이스 미니 제습공기청정기 콤팩트

청호나이스는 제습과 공기청정을 한번에 할 수 있는 2in1 형태의 초소형가전 ‘청호 미니 제습공기청정기 콤팩트(Compact·사진)’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청호 미니 제습공기청정기 Compact’는 195x215x315(W·D·H)mm의 초소형 사이즈에도 제습과 공기청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제습면적 20㎡, 청정면적 10㎡로 크기 대비 효과가 확실하다.

공기청정필터는 H13등급 헤파필터를 적용했으며 소비전력 45W로 전기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대기업이 못푼 문제, 스타트업이 푼다

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한전·신세계푸드 등 7곳 참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고민을 스타트업이 푸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가 공개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롯데중앙연구소, 신세계푸드, 사노피가 참여한다.

이들이 1탄으로 제시한 7개 과제는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 바이오헬스, 소재·제조 분야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광고사기(Ad

Fraud) 방지기술과 광고효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과제로 제시했다.

‘스마트 공항’(Smart Airport)으로 변화를 진행 중인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보안검색장내 반입금지 물품이 늘어나면서 보안검색 대기시간 증가 등 고객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시스템 고도화 과제를 제시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뇌파를 활용한 음식관련 제품 개발과 판매 등의 뉴로마케팅에서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찾고 있다.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무의식·의식 심리 행동을 분석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상의 맛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령 친화적 만성질환 관리와 난용성 물질의 수용화 기술개발 2개의 과제가 발굴됐다. 사노피는 고령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치료비용 감소와 더 큰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삶이 가능한 ‘한국형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을 과제로 제시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난용성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용화하는 소재나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커뮤민 등의 지용성 물질은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체내 흡수율이 문제로 작용하는데 신기술을 통한 흡수력 증대로 일반식품과 약물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에도 기여

## 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사 모집

337억 규모, 900여개사 지원

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8일까지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

수출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

는 사업이다.

2차 모집에는 3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총 900여개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고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K, 규제

자유특구, 스마트 제조혁신, 신산업·K-Bio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구분해 모집한다.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 규모 등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당 ‘한반도 평화 특위’ 출범…송영길 위원장 말한다  
▲ 이준석 “특검 캠프, 내 비방 문자 보낸 듯… 책임지고 사퇴해야” /사진 뉴시스

▲ 하태경 “성추행 피해 중사 도움 요청 거절? 사실 아냐”  
▲ 이재명, 현충일 추도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 조국·정경심, 나란히 법정 선다… 6개월 만에 재판 재개  
▲ 광역단체장 잇단 대권 출사표… SNS와 행정 성과 자신감 /사진 뉴시스